COMPANY
UPDATE

2026. 3. 19

대체투자팀

홍진현 Analyst
jinhyun.ho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KODA (비상장)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 선점

- 국내 커스터디 시장 점유율 약 90%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 MPC(Multi-Party Computation) 기반 콜드월렛으로 해킹 및 내부자 리스크 최소화
- ① 전통 금융기관이 주주 ② 주요 금융사와의 협업 구조 ③ 삼일 PWC SOC 인증 확보 등으로 제도권 신뢰 기반을 구축. 관련 법안 제도화 시 수혜 가능성
- 커스터디 기반 OTC·프라임 브로커로 확장 가능한 성장 구조 보유

WHAT'S THE STORY?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1위 사업자: KODA(한국디지털에셋, Korea Digital Asset)는 국내 대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 인프라를 제공.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KODA는 국내 커스터디 시장에서 약 90% 수준의 수탁고 점유율을 기록. 국내에서 발행된 이른바 '김치 코인' 물량을 포함해 약 700억개 토큰을 보관하고 있으며, 한국형 DAT 기업들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들도 수탁 보관 중.

• 제도권 금융기관 중심 신뢰 구조: KODA는 초기부터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 기반을 구축해 왔음. 주요 주주는 KB국민은행, 삼성자산운용, Hashed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 대응력과 기관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 또한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와의 협업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시 해당 기관의 가상자산 현물의 수탁 가능성 보유.

• 크립토 생태계 확장: KODA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인 빗썸, 코인원, 코팍스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중. 특히 USDC 발행사인 써클 인터넷 그룹(이하 CRCL)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들을 제공 1) CRCL의 Arc 메인넷 생태계 참여 2) 국내 기관의 USDC 발행/상환을 지원 3) CRCL의 MSCA 지갑 연계(상반기 중 런칭 예정)

콜드월렛(Cold Wallet) 구조 및 규제 적합성으로 안정성 확보:

• KODA는 해킹, 파산, 프라이빗 키 탈취 등 주요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콜드월렛 기반 보관 구조와 MPC(Multi-Party Computation) 기술을 적용. 특히 2 of 4 다중 서명 구조를 채택하여, 총 4개의 키를 분산관리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승인 시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 나머지는 복구용으로 KB국민은행 금고에 분산 보관. 게다가 콜드월렛은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운영되며, 별도의 물리적 보안 공간(콜드룸)에서 관리됨. 출금 프로세스 역시 최소 5인의 인원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을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KODA의 커스터디 서비스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고객 자산은 법적·회계적으로 별도 관리되며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를 갖음. 추가적으로, 삼성화재와 500억 규모 보험 계약을 통해 보장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리스크 발생 시에도 보완 장치를 확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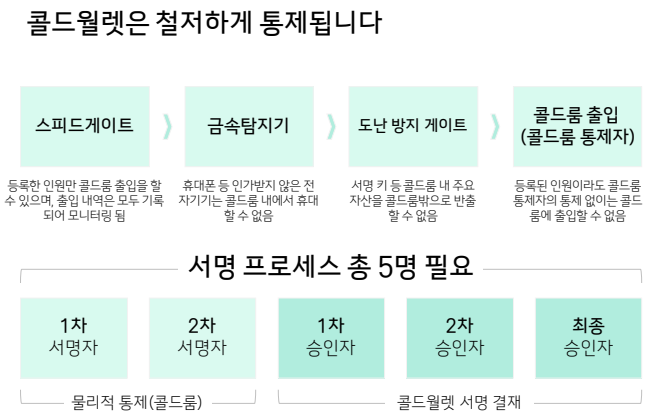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에 계속)

규제 적합성 및 내부통제 체계: KODA는 국내외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1) ISMS 인증 2) VASP(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요건 충족 3)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 또한 법인 고객의 회계·세무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글로벌 인증: KODA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SOC(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보고서를 확보. 이는 내부통제 및 운영 프로세스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검증받았다는 것을 의미. SOC는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기준으로 특히,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에서 중요도가 높음.
현재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제3자 수탁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 높음. 특히 상장사 및 기관 투자자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요구되며, 자산 보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핵심 요건이 될 것. 이러한 구조에서 KODA는 이미 SOC 보고서 및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제도화 시 기관 수요 집중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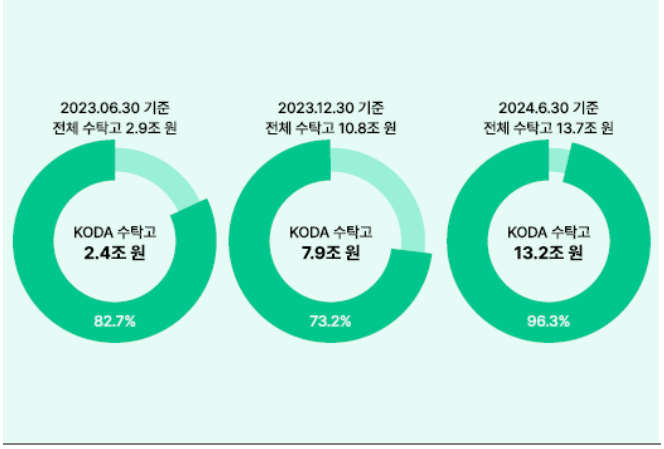
커스터디 기반 단계적 밸류체인 확장: KOD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제한적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향후에는, 제도 정비에 맞춰 OTC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도 보유. 해당 구조는 '커스터디 → OTC(기간 관 대량 거래 중개) → 프라임 브로커리지(자산 운용, 대차 등)'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발전 경로를 따름. 커스터디 단계에서 이미 확보한 기관 고객을 기반으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 락인 효과와 함께 높은 운영 레버리지 확보가 가능. KODA가 선점한 커스터디 시장 지위는 향후 사업 확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그림 1. 콜드월렛 출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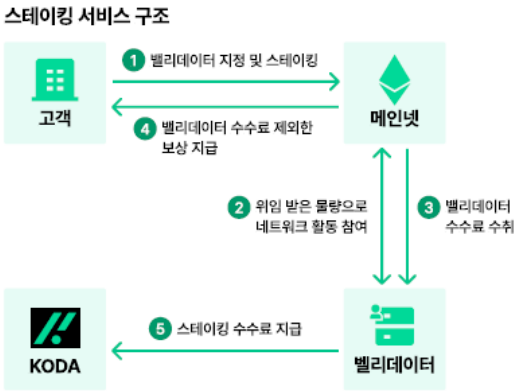
자료: KODA

그림 2. 가상자산 보관사업자 수탁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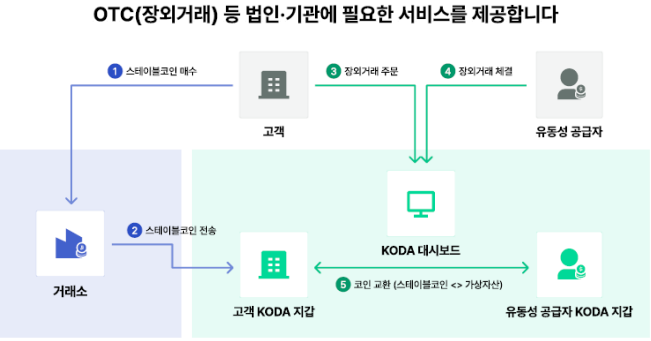
자료: KODA,
금융위원회 '23년 상반기/하반기, 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그림 3. KODA의 스테이킹 서비스 구조



자료: KODA

그림 4. KODA 성장 기회 및 전략- OTC 등



자료: KODA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3월 1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